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이 오는 2일부터 국립5·18민주묘지 입구에서 ‘제6회 예술만장전-빛의 혁명’을 진행한다. 지난해 만장전이 펼쳐진 모습.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제공〉

80년 오월의 기억...만장에 ‘광주의 빛’을 담다

광주민예총, 2~30일 국립5·18민주묘지서 제6회 예술만장전
전국 작가 40명 참여...시민 참여프로그램 ‘빛의 혁명...’ 진행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한강 작가의 물음에서 답을 얻은 2025년 5월, 만장(晩章)에 광주의 빛이 담긴다.
해마다 5월이면 광주에는 만자가 애도하며 지은 글을 깃발처럼 만든 만장이 걸린다. 광주정신과 대동세상의 염원을 담아 그날의 숭고한 뜻을 기리자는 의미다.
특히 12·3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지나온 올해 5월의 의미는 그 어느때보다 특별하다. “1980년의 광주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계엄을 막을 수 있었을까?” 우리들의 머리 속에 스치는 생각이다.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민예총)은 오는

2일부터 30일까지 국립5·18민주묘지 입구에서 제6회 예술만장전을 진행한다.
이번 만장전은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5월 광주를 민주주의의 정신을 기리는 축제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 주제는 ‘빛의 혁명’. 총감독을 맡은 정진영 작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던 거리에서 등장한 응원봉의 물결과, 차가운 겨울 거리를 지킨 일명 ‘키세스 시위대’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전했다.
단순히 죽은 자를 추모하는 것을 넘어, 5·18 정신을 이어받은 새로운 세대가 민주주의를 지켜가겠다는 약속을 상징한다.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는, 시대를 넘어 울리는 목소리를 작품에 투영한 것이 특징이다.

올해 만장전에는 전국 각지 작가 총 40인이 참여한다. 지난해까지는 주로 민중미술 작가들이 중심이 됐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 비상계엄 등의 영향으로 다양한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것. 광주의 신진 조각가 권운지, 광양의 화가 오윤종, 서울에서 활동 중인 김성자 작가 등 민예총 소속이 아닌 예술가들도 5·18에 대한 감사와 연대의 마음을 담아 동참한다.
올해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해 오월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빛의 혁명, 색으로 되새기다’도 마련된다. 오는 3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주의 문 앞에서 열리며, 참가자들은 전문 강사의 안내에 따라 자신만의 만장을 그리고 색칠하는 시간을 갖는다. 예술을 매개로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되새기고, 5·18의 의미를 가슴 속에 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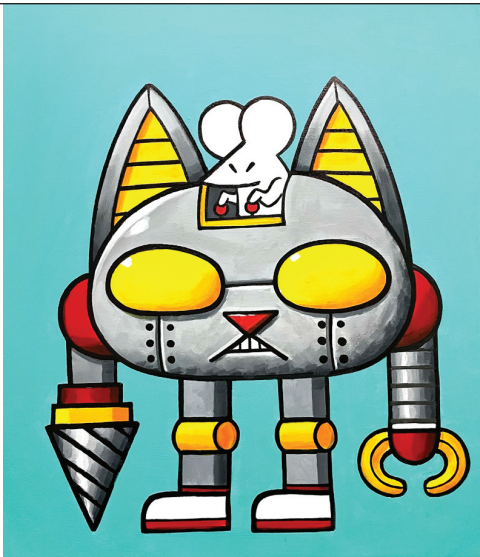
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5·18 기념행사 기간, 그동안 5회에 걸쳐 만장전에 사용됐던 작품 100여 점이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 전시될 예정이다.
정진영 총감독은 “예술만장전이 올해로 6회째를 맞는다. 해마다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한 분들을 잊지 않기 위해 만장을 열었지만, 올해는 ‘과거가 현재를 구했음’이 증명돼 그 의미가 더 각별하다”며 “전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심혈을 기울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5·18민주묘지와 만장전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예술만장전’은 2020년 시작돼 2030년까지 이어지는 광주 오월 콘텐츠 제작 사업의 일환으로 ‘Made in 광주, May 브랜드’라는 슬로건 아래 자유, 민주, 생명의 가치를 예술로 풀어내는 전시다. 광주 오월정신을 국내외 방문객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나의 하루가 상상 속 만화처럼 된다면

아트키카 7번째 기획전 ‘툰토피아’ 2일~6월 2일 주안미술관

‘일상이 만화처럼 특별해지는 순간’.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어린이들에게는 특별한 달이다. 어린이날이 있기도 하지만, 푸르른 5월처럼 미래의 주역인 우리 어린이들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아트 키즈카페(Art Kids Cafe)에서 연유한 약자인 아트키카는 주안미술관이 지난 2019년부터 펼쳐온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상상하고 예술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아트키카의 7번째 기획전 ‘툰토피아’(Toontopia)가 2일부터 6월2일까지 열린다.
어린이날과 가정의 달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전시는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참여작가는 권순범을 비롯해 골드윈, 이용범,

정배영 4명이며 이들은 저마다 개성적인 스타일로 작품을 구현했다. ‘툰토피아’(Toontopia)라는 주제가 말해주듯 작가들은 하루하루 일상을 만화 속 세계로 상징하고 웃음과 추억을 공유하는 의미를 담았다.
권순범 작가는 고양이를 모티브로 한 작품을 선보인다. 고양이를 사랑하지만 알레르기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경험을 작품에 투영했다. 영상과 이미지를 매개로 한 간접적 경험을 따스한 감성을 담아 풀어냈는데 실물이 없어도 감성으로 정서를 교감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골드윈 작가는 게임과 만화, 영상, 현실 등 다매체의 특징을 골고루 혼합하고 해체해 이색적인 혼합사회를 제작했으며, 이용범 작가는 ‘귀엽다는 건 힘이다’라는 모토로 유쾌한 캐릭터를 보며 관람객들이 실수에 대해 조금은 관대해지기를 바란 마음을 투영했다.



이용범 ‘메카고양이’

스쳐 지나간 시간들을 관찰해 기록해온 정배영 작가는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하루에 깃든 특별한 감성을 자신만의 화법으로 담아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일상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닌 소중한 시간이라는 인식을 전달한다.
김소현 학예사는 “이번 특별전은 5월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한



골드윈 ‘sandman’

점이 특징’이라며 “만화 속 하루와 같은 즐거우면서도 특별한 순간들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시 공간은 설치작품을 활용해 포토존으로 구성했으며, 이달 중 전시 연계 아트교육키트가 배부되고 온·오프라인 교육도 진행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제5회 5·18영화제 대상, 방성수 감독 ‘오월’

광주 영화인들 제작·출연...3D·VFX 활용 의미 더해

어떤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도드라지고, 선명해진다. 광주시민에게는 1980년의 5월이 그러하다.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기념해 열린 제5회 5·18영화제에서 방성수 감독의 영화 ‘오월’이 대상을 수상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서울지부와 (주)씨네허브컴퍼니가 주관하는 5·18영화제는 5·18을 기억하고, 광주 시민들의 투쟁과 희생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열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영상 콘텐츠를 발굴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춘 행사다.
영화제는 민주, 인권, 평화, 통일을 주제로 한 단편영화를 소개하며, 5·18주간 동안 출품작들을 온라인으로 무료 상영한다. 올해는 총 150편

이 출품됐다. 민주주의, 비정규직, 청년, 소수자 문제, 사회적 참사 등 다양한 시대적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이 함께했다.
대상작으로 선정된 방성수 감독의 영화 ‘오월’은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의 기록물 영상 제작 프로젝트로 완성된 작품이다. 어린 딸과 함께 광주를 찾은 사진작가 민서가 오래된 수첩과 필름카메라를 통해 1980년 5월의 참상을 마주하는 과정을 그려냈다.
할머니, 어머니, 손녀로 이어지는 시선을 따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영화는 관객들에게 “그날의 당신은 누구였습니까?”라는 묵직한 질문을 남긴다.
3D 애니메이션과 시각효과(VFX)를 적극적



방성수 감독 영화 ‘오월’ 스틸컷.

으로 활용했다는 점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이다. 역사적 공간과 시간을 3D 그래픽을 통해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고자 한 시도가 돋보인다.
특히 이 작품은 제작진 전원이 광주 지역 영화인들로 꾸려져 그 의미를 더했다.

방 감독은 “5·18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에게도 그날의 아픔과 용기를 전하고, 살아남은 자들의 책임과 연대를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지난해 열린 졸업전시 ‘오색운율’ (전남대 미술학과 서양화전공). <ACC 제공>

ACC서 졸업전시 하세요

지역 예술대학 졸업 전시 학과 공모
대나무정원 공간 제공 6~16일 접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김상욱, ACC) 대나무정원은 채광이 잘 되고 미적인 분위기가 감도는 공간이다. 넓은 창 너머 푸른 대나무가 비치는 모습은 관람객에게 이색적인 정취와 힐링을 선사한다.
이곳에서는 지난해 호남지역 예술대학 졸업 전시가 열려 인기를 끌었다.
ACC는 올해도 대나무정원에서 졸업 전시를 펼칠 문화예술 관련 학과를 공모한다. 전시 제목은 ‘운율의 아침’.
이번 공모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일환으로 예비 문화예술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해 ‘오색운율’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전시는 전공 학생들이 ‘빛에 반짝이는 잔물결’처럼 미래를 향해 잠재력을 뽐어나가라는 의미를 담았다. 올해도 그 연장선에서 대나무 정원에 들어치는 밝은 물결을 상징해 ‘운율정원’으로 정했다.
전시를 희망하는 호남지역 예술학과는 오는 6월~16일까지 ACC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학과 학생들에게는 실무경험이 제공된다.
한편 김상욱 전당장은 “이번 공모는 지역 대학과의 협력관계를 토대로 미래 문화예술 창제작자 발굴 및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지역협력을 넘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서울예술단 ACC 이전’ 논의

광주아트포럼 성료

최근 광주 문화예술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예술단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이전을 주제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광주아트포럼은 지난달 23일 ACC다자이호텔 연회장에서 ‘서울예술단의 ACC 이전에 따른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서울예술단의 광주 이전 계획에 대해 서울예술단 측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갈등 해소 방안을 함께 찾아보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이병원 전 국회의원(서울예술단의 광주 이전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존 ‘한국적 전통의 현대화’에서 ‘아시아 공동 창작 및 공연 교류 및 협력’으로 확대·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제작비 증액과 처우 개선을 위해 문제부, 광주시,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선 지형원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지원포럼 회장은 “문제부가 사전 공청회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점이 서울예술단의 반발을 불렀다”며 “광주 지역 기관들의 대응 역시 부족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서울예술단의 광주 이전이 무산될 경우 ‘아시아예술단’을 창단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수도권과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목표로 ‘문화비전 2035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지난 3월 그 첫 단계로 서울예술단을 ACC 상주단체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